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ANDY COHEN**, 입법 세션 종료 전 대리모 합법화와 함께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결집

성소수자(LGBTQ) 옹호 그룹, Cuomo 주지사의 성장하는 캠페인에 동참

대리모 합법화는 동성애자 커플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성애자 커플이 임신 지원을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패닉 방어에 대한 금지 조치는 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당한 사람들이 동성애 혐오 또는 성 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 전략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두 가지 제안 모두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추진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브라보 티비(Bravo TV) 프로듀서 겸 호스트 Andy Cohen은 오늘, 6월 19일 입법 심의회 종료 전 대리모 합법화를 비롯해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결집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입법 세션의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외로 처리됩니다. 5월 30일, 주지사는 심의회가 끝나기 전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는 [캠페인](#)과 [웹사이트](#)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LGBTQ) 옹호 그룹은 주지사의 성장하는 연합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평등 문제에서 세계 리더는 아닐지라도 국내 리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입법 심의회가 7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매우 중요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 두 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리모 합법화와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입니다. 주정부는 이것들을 지금 통과시켜야 합니다. 뉴욕은 국내에서 다양성의 중심이고 주정부는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 지역사회, 수용, 포용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 나라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은 월드 프라이드(World Pride)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뉴욕은 다시 한번 앞장서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과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이 이제 뉴욕주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한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대리모 합법화와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시키는 법안은 성소수자(LGBTQ)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혐오와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층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Andy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하고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대신하는 주지사님의 대단한 작업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동성 결혼에서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 뉴욕의 대리모 금지를 없애는 것까지,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을 국내 진보의 수도로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매일 새로운 기적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며 가족을 만드는 전제조건은 사랑이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시점인 2019년에 누구도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부모 보장법(Child-Parent Security Act, CPSA)이 통과되어 뉴욕의 현대 가정이 자유를 얻고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보호받게 되길 기대합니다."

대리모 합법화

대리모는 성소수자(LGBTQ) 커플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성애자 커플이 임신 지원이라는 의료적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뉴욕주 주법은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재생산 기술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재생산 보건법의 포용성을 늘리기 위해,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대리모 계약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

현재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책임을 희생된 성 소수자의 실제 혹은 인지된 성적 취향 혹은 성 정체성 탓으로 돌려, 성 소수자(LGBTQ)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은 형량을 받고 경우에 따라 유죄 판결을 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이 희생된 성 소수자의 성별, 성 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을 인식 혹은 발견하여 공격한 후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뉴욕주 법의 허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Cynara Charles-Pier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할 때 겪는 고통과 실망은 말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뉴욕 및 전국 여성들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리모가 유일한 선택권임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여성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많은 뉴욕 주민이 방법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 성소수자 지역사회 센터(LGBT Community Center)의 Glenda Testone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50주년에 세계가 뉴욕을 역사적 성소수자(LGBTQ) 인권운동의 선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치를 취하여 우리가 오늘날 그 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지는 의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뉴욕은 동성애자/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통과시켜 성소수자(LGBTQ)의 정의를 실행하고 성소수자(LGBTQ) 혐오 범죄에 대해 희생자를 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많은 성소수자(LGBTQ) 가족이 부모가 되기 위해 현재 겪고 있는 길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뉴욕 법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뉴욕주에서 시민 권리 및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Marty Rouse 인권 캠페인 전국 현장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종종 평등을 위해 싸울 때 선두에 섭니다. 우리 리더들이 성소수자(LGBTQ) 반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고 모든 부모가 어려움 없이 가족을 만들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성소수자(LGBTQ) 패닉 방어를 금지하고 대리모 법을 현대화하는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더욱 안전하고 성소수자(LGBTQ)와 그 가족을 환영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님, 의원들, 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Sam Brinton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를 위한 옹호 및 공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LGBTQ) 청소년, 특히 젊은 유색인 여성들은 자신의 본 모습으로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껴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에 연락합니다. '케이 패닉' 방어를 없애는 법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뉴욕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Islan Nettles의 어머니인 **Delores Nett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2013년 살해당했고, 범인은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는 편견에 가득 찬 가해자가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겨운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이러한 변명이 절대 통해서는 안됩니다. 혐오 범죄로 자녀를 잃은 모든 부모들은 이러한 편향된 법적 허점으로 인해 자녀를 공격한 가해자가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무죄 방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서는 안됩니다. 저는 패닉 방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는 뉴욕을 성소수자(LGBTQ)에게 더욱 안전하고 정당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 남성의 건강 위기(Gay Men's Health Crisis)의 Kelsey Louie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을 맞이하며 올버니에서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게이 남성의 건강 위기(Gay Men's Health Crisis)는 뉴욕주 Andrew Cuomo 주지사님,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뉴욕주 의회가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아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엄격한 대리모 법과 이른바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폐지할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뉴욕주에 있는 모든 이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성 전환자, 특히 유색 성 전환 여성은 법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고 보호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성소수자(LGBT)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법을 통과시킨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두 문제를 통과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아커맨 젠더 및 가족 보호 협회(The Gender & Family Project of the Ackerman Institute)의 Jean Malpas 창립자 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았으므로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유발하는 구식의 고정관념에 기반한 뉴욕주의 대리모 금지, 동성애 및 성 전환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재량은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맨 해빙 베이비스(Men Having Babies)의 Ron Poole-Dayan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부모 보장법(CPSA)은 유일하게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 성소수자(LGBT) 가족 협회가 지지하는 윤리 강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이 이 문제에 관하여 주도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없애는 것은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가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회는 주지사님을 따라 입법 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에서 성소수자(LGBTQ) 인권은 후퇴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네트워크(LGBT Network)의 David Kilmnick(박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대리모 합법화와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위해 싸우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국내 가장 큰 교외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회사로서 저희는 모든 뉴욕 주민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보장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의 평등을 촉진할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가 있는 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시 반폭력 프로젝트(New York City Anti-Violence Project)의 Beverly Tillery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법적 방어를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정에서 동성애 혐오 및 성 전환자 혐오를 방어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주장한다면, 그는 피해자의 정체성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난하여 자신의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주 전역에서 뉴욕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라는 끔찍한 법안이 계속 남아있고, 동성애자 커플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족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뉴욕주가 계속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미국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전국 불임 협회(The National Infertility Association) 리솔브(RESOLVE)의 Risa Levine 이사회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불임 가족은 주치의를 이용하고 집 근처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 기회가 필요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가족 형성 선택권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후진 제한들을 없앨 때입니다. 저희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뉴욕에서 보상형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데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이즈 라틴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의 Guillermo Chacó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 권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몇몇 중요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중요한 두 법안을 의회에서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자리에 주지사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대리모 합법화와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로 우리는 뉴욕을 진정한 평등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 평등 프로젝트(Caribbean Equality Project)의 Mohamed Q. Amin 설립자 겸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 의회 리더들이 아직도 법전에서 이렇게 구식이고 차별적인 법을 없애지 않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는 이 훌륭한 주가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평등을 가져오려고 이룬 진보를 약화시키며 후퇴하게 할 뿐입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모든 곳에서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뉴욕주 의회가 성소수자(LGBTQ) 반대 혐오 범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함으로써 퀴어 및 성 전환자/성별 비순응자(Transgender/Gender Non-conforming, TGNC)의 삶을 보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뉴욕 트랜스젠더 옹호 그룹(New York Transgender Advocacy Group)의 **Amanda Babine** 정책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 심의회가 7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만 바로 여기 뉴욕에서 10명의 성 전환 유색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성소수자(LGBTQI) 가족이 여기 뉴욕에서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도울 대리모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이 법안 모두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의 권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바로 잡을 것이 기대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이 문제를 지지하므로 뉴욕 트랜스젠더 옹호 그룹(New York Transgender Advocacy Group)은 주지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의원들이 올해 올버니를 떠나기 전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람브다 리걸(Lambda Legal)의 **Richard Burns** 임시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패닉 방어를 없애는 것은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뉴욕의 성소수자(LGBTQ)들이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동성애자 패닉' 및 '성 전환자 패닉'이라는 이른바 방어를 근거로 행해지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반드시 이번 세션이 종료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뉴욕은 성소수자(LGBTQ) 평등을 선도하는 주로서의 명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람브다 리걸(Lambda Legal)은 해당 문제에 대한 주지사의 강력한 지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는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평등 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교육 기관, 임대주, 채권자, 기타 주민이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죄나 증오를 표현하는 범죄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18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법(education law)에 따라 전문가 면허를 받는 직업에 대한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기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요한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조항의 잠재적인 퇴행을 예상하여, Cuomo 주지사는 보건부가 건강보험 제공기관이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트랜스젠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확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들은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명시된 성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폐지하라는 Trump 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약

90,300명의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불공정하고 노골적이며 불법적인 차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2017년 연방 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연방 정부 보호책을 역행시킨 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지시하여 교육부가 뉴욕주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을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